

# 내신 기출

문학 미래엔 (하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 <<내신 기출 문학 미래엔-하편>>

## ◆차례◆

### 4.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 (1) 고대 문학

\*주몽신화-----1쪽 (30문제)

\*공무도하가-----18쪽 (26문제)

#### (2) 중세 문학

\*찬기파랑가-----27쪽 (27문제)

\*청산별곡-----37쪽 (31문제)

\*경설-----48쪽 (16문제)

\*시조 세 편-----55쪽 (22문제)

\*사미인곡-----63쪽 (32문제)

#### (3)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어이 못 오던가-----76쪽 (24문제)

\*홍보전-----85쪽 (32문제)

\*절명시-----101쪽 (5문제)

#### (4) 근현대 문학

\*초혼-----104쪽 (28문제)

\*만세전-----116쪽 (28문제)

\*백록담-----134쪽 (11문제)

\*광장-----140쪽 (14문제)

\*월고지-----151쪽 (16문제)

\*벼-----164쪽 (7문제)

\*내 여자의 열매-----169쪽 (3문제)

### 5.문학의 가치

\*다시 느티나무가-----172쪽 (5문제)

▶전체 정답-----175쪽

▶해설-----178쪽

(버전: 2020.06.11.) 이번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사이트에서 오류체크!**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 주몽 신화 \_ 작자 미상

### 작품 기관

<b>감체</b>	건국 신화
<b>성격</b>	신화적, 서사적, 영웅적
<b>제재</b>	주몽의 고구려 건국
<b>주제</b>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난 주몽의 영웅적 업적
<b>특징</b>	①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음. ② 천손 강림, 난생 등의 여러 가지 신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음. ③ 후대 영웅 서사 문학의 구조에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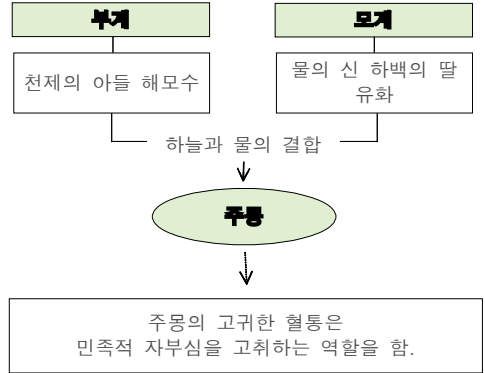
### 작품의 구성

<b>고귀한 혈통</b>	천신과 수신의 만남으로 태어남.
<b>기이한 출생</b>	유화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임신하고 알을 낳음.
<b>어렸을 때 버림을 받음.</b>	금와왕이 알을 버림.
<b>탁월한 능력</b>	한 달이 못되어 말을 하고, 활 쏘는 능력이 탁월함.
<b>시련과 위기</b>	대소를 비롯한 금와왕의 아들들로부터 위협을 받음.
<b>조력자의 도움</b>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함.
<b>위대한 업적</b>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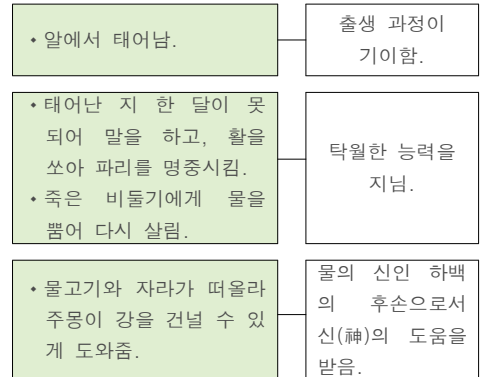
### 핵심 1 건국 신화의 뜻과 특징 및 의의

건국 신화의 뜻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 건국 시조가 나라를 세우게 된 내력을 담은 신성한 이야기</li> <li>• 특징: 건국 행위에 신성성을 부여하고, 건국 시조를 신격화함.</li> </ul>
<b>의의</b>	안으로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집단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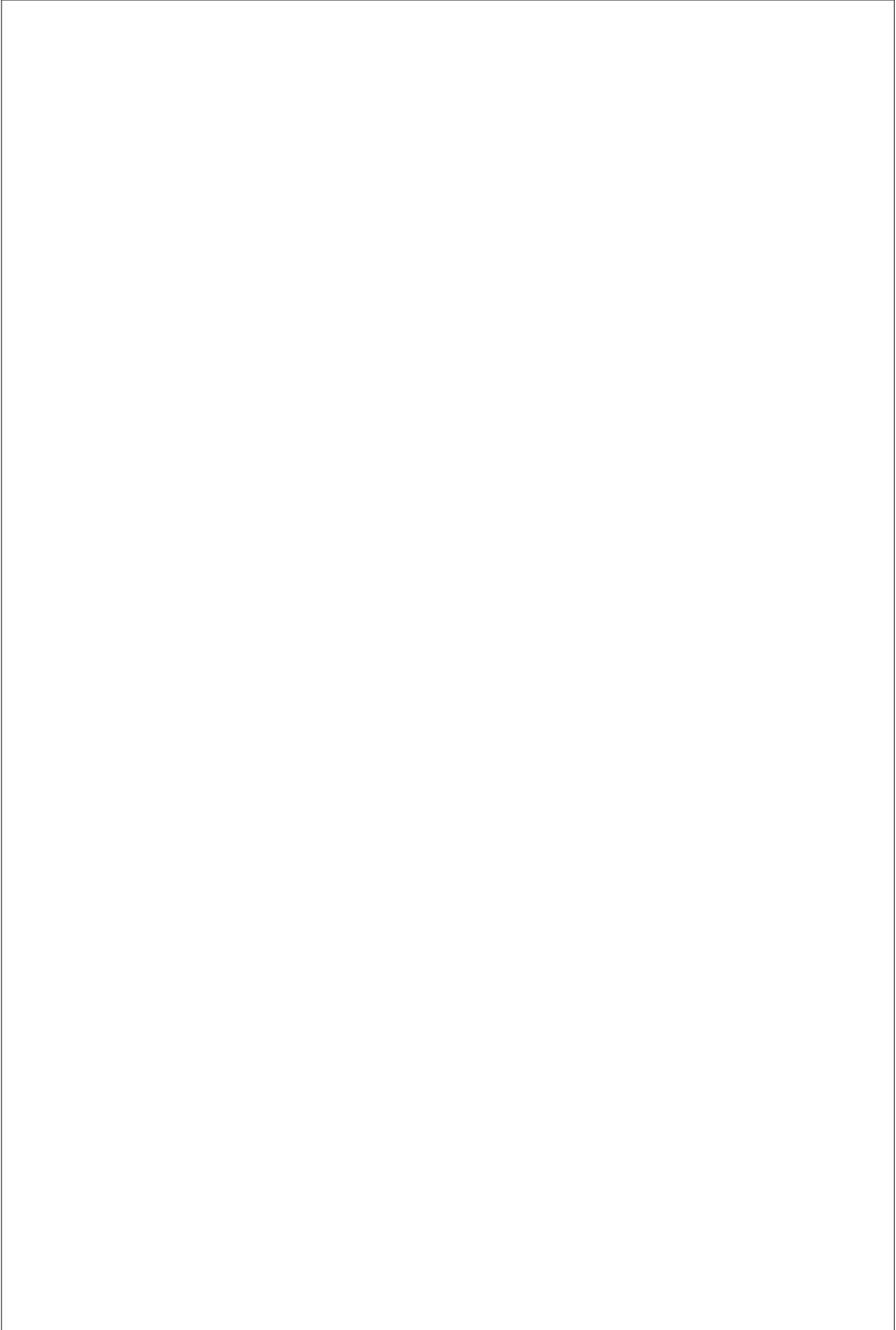
### 핵심 2 주몽의 고귀한 혈통



### 핵심 3 주몽의 신이함이 드러나는 장면



4-(1) 주몽신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백은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는가? 하니, 왕이 대답하되 “나는 천제의 아들인데, 이제 하백에게 구혼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내가 천제의 아들로 나에게 구혼을 하려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라 하였다. 왕은 부끄러워하며 장차 하백을 찾아가 만나 보려 하였으나 궁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자를 놓아 보내고자 하였으나 여자는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에게 권하기를 “만약 용거(龍車)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 했다. 왕이 하늘을 가리키며 고(告)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오룡거(五龍車)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왕과 여자가 오룡거에 오르자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일어 나더니 하백의 궁궐에 이르렀다. 하백은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자리를 정한 뒤에 말하되 “혼인의 예법은 천하에 통용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를 잃어 나의 가문을 욕되게 하였는가? 왕이 천제의 아들이라, 하는데 무슨 신이(神異)한 재주가 있는가?”라 했다.

왕이 말하되 “오직 시험해 보소서.”라 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의 물에 들어가 잉어가 되어 물결을 따라 놀자 왕은 수달로 변해서 잉어를 잡았다.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어 달아나니 왕은 늑대로 변해서 쫓았고, 하백이 꿩이 되니 왕은 매로 변해서 공격했다.

하백은 이 사람이 진실로 천제의 아들이라 여기고 예법에 따라 혼인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가 자신의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웠다. 이에 잔치를 베풀고 술을 권하여 크게 취하게 한 뒤에 딸과 함께 작은 혁여(革輿)에 넣어 용거에 실어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그런데 용거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도 전에 왕은 술이 깨었다. 그리고 여자의 황금 비녀를 가져다가 혁여를 뚫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와 홀로 하늘로 올라갔다.

하백은 크게 노하여 그 딸 유화에게 말하되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고 하고, 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딸의 입을 잡아 늘여 그 입술의 길이가 삼 척이나 되게 했다. 그리고 노비 두 사람만을 주어 우발수(優渤水) 가운데로 귀양을 보냈다.

어사(漁師) 강력부추(強力扶耡)가 금와왕에게 고하기를 “요즈음 어량(魚梁) 안의 고기를 훔쳐 가는 자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 하였다.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 그물을 만들어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서 나왔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입술을 세 번 자른 뒤에야 말을 했다. 왕이 천제 아들의 비(妃)임을 알고 별궁(別宮)에 두었는데,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신작(神雀) 4년 계해년(癸亥年) 4월에 주몽(朱蒙)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

되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라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馬木)에 가져다 두었으나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했다.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이에 왕은 알을 그 어미에게 보내 기르도록 했다.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되어 말을 하였다. 어머니에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라 하니,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의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했다.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졌다. 금와 왕에게는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하였다. 왕자가 사십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다. 왕자가 질투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 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 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 버리고 돌아왔다. 태자(太子)인 대소(帶素)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코자 했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듣건대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고, 드디어 마목으로 가서 긴 말채찍으로 마구 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 넘었다.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허뿌리에 바늘을 찌러 놓았더니, 그 말은 허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매우 아위었다.

왕이 마목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야윈 말을 주몽에게 주니, 주몽은 말을 얻어 그 바늘을 뽑고서 먹을 것을 주었다. 주몽은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보(陝父) 등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개사수(蓋斯水)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다.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주교(舟橋)를 보내 주소서.”라 하였다.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라.”라 하고 이에 오곡(五穀)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

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말하되 “분명히 신모(神母)께서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라 하고, 이에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았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왕은 스스로 피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나타난 신화의 특성 중 주인공의 신이함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만으로 묶은 것은?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양재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을 그 갈래적 성격과 가치를 고려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작품이 형성된 시기에는 농경이 신성시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② 수렵을 위해 말이 중요했기 때문에 왕자들도 말을 기르는 일을 도왔다.
- ③ 어머니는 버리고 떠나는 주몽의 모습에서 당시의 남존여비 사상을 엿볼 수 있다.
- ④ 주몽의 행적 위주의 구체적이고 사실적 진술로 신뢰성이 높은 글이다.
- ⑤ 유화와 해모수의 사랑은 당대 사람들의 자유로운 애정관을 설명해준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3. 한국문학의 영웅 서사에서는 대체로 <보기 2>와 같은 공통적인 구조(영웅 일대기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보기 1>

길동은 흥 판서와 시비 춘섬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다. 그는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 흥 판서의 사랑을 받지만, 천비 소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율분의 나날을 보낸다. 길동은 집안에서 흥 판서의 첩인 초란이 자신을 시기하는 마음에 음해하여 죽이려는 것을 알고 출가한다. 위기를 피해 집을 나와 떠돌던 중, 길동은 도적의 무리를 만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활빈당(活貧黨)을 조직한다. 길동은 도술에 능하여 신출귀몰하며 팔도의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양민을 돕지만 조정에서는 그를 잡기 위해 애쓴다. 조정에서 길동을 회유하려고 병조 판서로 임명하자, 길동은 조선을 떠나 남경으로 가던 중 울도국을 발견하고 이를 정벌하여 왕이 된다. 길동은 울도국에서 선정을 베풀다가 신선이 되어 사라진다.

- 허균, 「홍길동전」 줄거리

<보기 2>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 어려울 때 버림을 받거나 위기를 겪음
㉡
시련과 위기
조력자의 도움과 시련극복
㉢

- (1) <보기 1>에서 <보기 2>의 영웅 일대기 구조 중 ㉠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 윗글의 내용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주몽신화와 홍길동전의 내용을 비교하여 둘 다 언급하되,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쓰시오.)
- (2) <보기 2>에 정리된 영웅 일대기 구조의 흐름 중 ㉡, ㉢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부여 왕은 정승 아란불(阿蘭弗)의 꿈에 나타난 천제(天帝)의 말에 따라 도읍을 옮겨 나라 이름을 '동부여(東扶餘)'라 하였는데, 예전 도읍에는 신작(神雀) 3년에 천제의 아들 해모수(解慕漱)가 내려왔다.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정사를 돌보았는데, 하백(河伯)의 세 딸인 유화(柳花), 흰화(萱花), 위화(葦花)를 보고 왕비로 삼으려 했다. 해모수가 궁전을 지어 놓고 세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문을 닫으니, 맏딸인 유화는 미처 달아나지 못하여 해모수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①하백은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는가? 하니, 왕이 대답하되 “나는 천제의 아들인데, 이제 하백에게 구혼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네가 천제의 아들로 나에게 구혼을 하려 한다면 마땅히 증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라 하였다. 왕은 부끄러워하며 장차 하백을 찾아가 만나 보려 하였으나 궁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자를 놓아 보내고자 하였으나 여자는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에게 권하기를 “만약 龍車(용거)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 했다. 왕이 하늘을 가리키며 告(고)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五龍車(오룡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 왕이 말하되 “오직 시험해 보소서.”라 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의 물에 들어가 잉어가 되어 물결을 따라 놀자 왕은 수달로 변해서 잉어를 잡았다.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어 달아나니 왕은 늑대로 변해서 쫓았고, 하백이 꿩이 되니 왕은 매로 변해서 공격했다.

②하백은 이 사람이 진실로 천제의 아들이라 여기고 예법에 따라 혼인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가 자신의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웠다. 이에 잔치를 베풀고 술을 권하여 크게 취하게 한 뒤에 딸과 함께 작은 혁여(革輿)에 넣어 용거에 실어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③그런데 용거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도 전에 왕은 술이 깨었다. 그리고 여자의 황금 비녀를 가져다가 혁여를 놓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와 홀로 하늘로 올라갔다.

하백은 크게 노하여 그 딸 유화에게 말하되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고 하고, 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딸의 입을 잡아 늘여 그 입술의 길이가 삼 척이나 되게 했다. 그리고 노비 두 사람만을 주어 우발수(優渤水) 가운데로 귀양을 보냈다.

(다) 어사(漁師) 강력부추(強力扶鄒)가 금와왕에게 고하기를 “요즈음 어량(魚梁) 안의 고기를 훔쳐 가는 자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 하였다.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 그물을 만들어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서 나왔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입술을 세 번 자른 뒤에야 말을 했다. 왕이 천제 아들의

비(妃)임을 알고 별궁(別宮)에 두었는데,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신작(神雀) 4년 계해년(癸亥年) 4월에 주몽(朱蒙)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닳되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알을 낳았으니 상스럽지 못하다.”라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馬木)에 가져다 두었으나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했다.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이에 왕은 알을 그 어머니에게 보내 기르도록 했다. (중략)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졌다. 금와 왕에게는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하였다. (중략)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코자 했다. ④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듣건대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고, 드디어 마목으로 가서 긴 말 채찍으로 마구 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물레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매우 야위었다.

(라) 왕이 마목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야윈 말을 주몽에게 주니, 주몽은 말을 얻어 그 바늘을 뽑고서 먹을 것을 주었다. 주몽은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보(陜父) 등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개사수(蓋斯水)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다.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⑤황천후토(皇天后土)는 외로운 이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주교(舟橋)를 보내 주소서.”라 하였다.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마)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라.”라 하고 이에 오곡(五穀)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말하되 “분명히 신모(神母)께서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라 하고,

이에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았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 작자 미상, <주몽신화>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나타난 천신과 수신의 결합으로 인해 주인공이 비범성을 획득한다.
- ② (나)는 주인공의 신이한 능력이 부각되면서 나라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다)와 (마)에서 당대에 어업, 수렵, 농경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대 영웅 소설에 영향을 미친다.
- ⑤ 이 작품은 민족 내의 결속력을 높이고, 밖으로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5. <보기1>을 참고하여 윗글을 바르게 이해한 내용으로 <보기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1>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몹시 바랐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만 했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중략)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신령스러운 썩 한 타래와 마늘 스무 쪽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얻어먹고 삼칠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못하여 사람의 몸으로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어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한 후 웅녀가 아이를 임신하여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단군은 요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고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 작자 미상, <단군 신화>에서

<보기2>

- ㄱ. <보기1>과 윗글은 주인공의 부모가 모두 신적인 존재이다.
- ㄴ. <보기1>과 윗글 모두 천손강림(天孫降臨)의 요소가 나타난다.

ㄷ. <보기1>은 고조선의 건국신화이고, 윗글은 고구려의 건국신화이다.

ㄹ. <보기1>과 윗글의 주인공 모두 어린 시절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겪는다.

ㅁ. <보기1>과 윗글 모두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통해 이야기의 주축을 이끌어 나간다.

ㅂ. <보기1>은 투쟁과 갈등의 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윗글은 투쟁과 갈등의 요소가 드러난다.

ㅅ. <보기1>은 정상적인 출산의 과정을 거치지만 윗글은 난생(卵生)을 통한 비정상적인 출산의 과정을 거친다.

- ① ㄱ, ㄹ, ㅁ                      ② ㄴ, ㄷ, ㅂ
- ③ ㄴ, ㄷ, ㅁ, ㅅ                ④ ㄴ, ㄷ, ㅂ, ㅅ
- ⑤ ㄱ, ㄴ, ㄷ, ㅂ, ㅅ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하백은 중매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딸을 취한 해모수의 태도에 화가 난 상태이다.
- ② ㉡에서 하백은 해모수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하고 나서 딸의 남편감으로 흡족한 상태이다.
- ③ ㉢으로 인해 결국 해모수와 유화가 이별하게 되었다.
- ④ ㉣은 대소와 겨루고 싶지만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주몽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7. (1) <보기> ㉡의 내용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2) 해당하는 부분을 윗글에서 2군데를 찾아 문장의 형태로 서술하시오.**

<보기>

고전소설에는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기괴하고 신기한 사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귀신과 인연을 맺거나 사람이 물고기로 변하는 등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신비롭고 허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이를 ( ㉡ )이라 한다.

<조건>

<보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왕은~정하였다.’처럼 첫 어절과 끝 어절에 해당하는 부분만 예시와 같은 형태로 적는 것도 허용되되, 1문장씩 제시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백은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는가?” 하니, 왕이 대답하되 “나는 천제의 아들인데, 이제 하백에게 구혼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네가 천제의 아들로 나에게 구혼을 하려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라 하였다. 왕은 부끄러워하며 장차 하백을 찾아가 만나 보려 하였으나 궁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자를 놓아 보내고자 하였으나 여자는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에게 권하기를 “만약 용거(龍車)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 했다. 왕이 하늘을 가리키며 고(告)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오룡거(五龍車)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왕과 ㉠여자가 오룡거에 오르자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백의 궁궐에 이르렀다. 하백은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자리를 정한 뒤에 말하되 “혼인의 예법은 천하에 통용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를 잃어 나의 가문을 욕되게 하였는가? 왕이 천제의 아들이라 하는데, 무슨 신이(神異)한 재주가 있는가?라 했다. 왕이 말하되 “오직 시험해 보소서.”라 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의 물에 들어가 잉어가 되어 물결을 따라 놀자 왕은 수달로 변해서 잉어를 잡았다.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어 달아나니 왕은 늑대로 변해서 쫓았고, 하백이 꿩이 되니 왕은 매로 변해서 공격했다.

하백은 이 사람이 진실로 천제의 아들이라 여기고 예법에 따라 혼인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가 자신의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웠다. 이에 잔치를 베풀고 술을 권하여 크게 취하게 한 뒤에 딸과 함께 작은 혁여(革輿)에 넣어 용거에 실어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그런데 용거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도 전에 ㉡왕은 술이 깨었다. 그리고 여자의 황금 비녀를 가져다가 혁여를 뚫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와 홀로 하늘로 올라갔다. 하백은 크게 노하여 그 딸 유화에게 말하되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고 하고, 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딸의 입을 잡아 늘여 그 입술의 길이가 삼 척이나 되게 했다. 그리고 노비 두 사람만을 주어 우발수(優渤水) 가운데로 귀양을 보냈다.

어사(漁師) 강력부추(強力扶鄒)가 금와왕에게 고하기를 “요즈음 어량(魚梁) 안의 고기를 훔쳐 가는 자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 하였다.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 그물을 만들어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서 나왔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입술을 세 번 자른 뒤에야 말을 했다. 왕이 천제 아들의 비(妃)임을 알고 별궁(別宮)에 두었는데,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신작(神雀) 4년 계해년(癸亥年) 4월에 주몽(朱蒙)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닳되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알을 낳았으니 상스럽지 못하다.”라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馬木)에 가져다 두었으나 알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했다.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이에 왕은 알을 그 어미에게 보내 기르도록 했다.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되어 말을 하였다. 어머니에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라 하니,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의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했다.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졌다. 금와 왕에게는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하였다. 왕자가 사십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다. 왕자가 질투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 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 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 버리고 돌아왔다. 태자(太子)인 대소(帶素)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코자 했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듣건대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고, 드디어 마목으로 가서 긴 말채찍으로 마구 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허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허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매우 야위었다.

㉢왕이 마목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야윈 말을 주몽에게 주니, 주몽은 말을 얻어 그 바늘을 뽑고서 먹을 것을 주었다. 주몽은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보(陜父) 등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개사수(蓋斯水)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다.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주교(舟橋)를 보내 주소서.”라 하였다.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라.”라 하고 이에 오곡(五穀)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말하되 “분명

히 신모(神母)께서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라 하고, 이에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았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 작자 미상, <주몽 신화>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8. ㉠ ~ ㉢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구혼 상대에게 용거(龍車)를 보내는 예를 갖추지 않아 상대로부터 꾸지람을 듣는다.
- ② ㉠은 부여의 임금으로, 유화가 천제 아들의 비(妃)임을 알고 그녀를 보살피는 인물이다.
- ③ ㉡는 부여의 임금으로, 신하들로부터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라는 평가를 듣는 인물이다.
- ④ ㉢은 ㉠가 장차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여 그를 마목(馬牧)에 버려 제거하려 하였다.
- ⑤ ㉢은 ㉠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으나 일단 후일을 도모(圖謀)하기 위해 말 기르는 일을 계속하였다.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9. <보기>는 영웅 일대기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의 주인공의 행적을 <보기>와 연관 지었을 때, ㉠ ~ ㉢에 대한 해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고귀한 혈통
㉡ 기이한 출생
어린 시절의 시련
㉢ 비범한 능력
㉣ 성장 후의 시련
조력자의 도움
㉤ 위업 달성

- ① ㉠ : 주인공은 하늘의 혈통인 부계(父系)와 평범한 인간인 모계(母系)의 혈통이 결합하여 태어났다.
- ② ㉡ : 주인공의 출생에는 천손 강림, 난생 등 다양한 신화적 요소가 나타난다.

- ③ ㉢ :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으로 활쓰기를 강조한 이유는 당시 지도자에게 요구되었던 덕목과 관련이 있다.
- ④ ㉣ :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주인공이 겪는 시련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⑤ ㉤ : 주인공이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10. <보기>를 참고하여, ㉡와 ㉣의 공통점을 세 가지만 쓰시오.

<보기>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신령스러운 썩 한 타래와 마늘 스무 쪽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며 곧 사람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얻어먹고 삼칠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못하여 사람의 몸으로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어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한 후 웅녀가 아이를 임신하여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부여 왕 해부루(解夫婁)는 산천(山川)에 제사하여 곤연(漣)의 돌 아래에서 아들 금와(金蛙)를 얻었다. 부여 ㉠왕은 정승 아란불(阿蘭弗)의 꿈에 나타난 천제(天帝)의 말에 따라 도읍을 옮겨 나라 이름을 '동 부여(東扶餘)'라 하였는데, 예전 도읍에는 신작(神雀) 3년에 천제의 아들 해모수(解慕漱)가 내려왔다.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정사를 돌보았는데, 하백(河伯)의 세 딸인 유화(柳花), 흰화(萱花), 위화(葦花)를 보고 왕비로 삼으려 했다. 해모수가 궁전을 지어 놓고 세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문을 닫으니, ㉡만딸인 유화는 미처 달아나지 못하여 해모수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하백은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는가? 하니, ㉢왕이 대답하되 "나는 천제의 아들인데, 이제 하백에게 구혼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네가 천제의 아들로 나에게 구혼을 하려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라 하였다. <중략>

왕과 여자가 오룡거에 오르자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백의 궁궐에 이르렀다. 하백은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자리를 정한 뒤에 말하되 "혼인의 예법은 천하에 통용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를 잃어 나의 가문을 욕되게 하였는가? 왕이 천제의 아들이라, 하는데 무슨 신이(神異)한 재주가 있는가?"라 했다. <중략>

어사(漁師) 강력부추(強力扶鄒)가 금와왕에게 고하기를 "요즈음 어량(魚梁) 안의 고기를 훔쳐 가는 자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 하였다.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 그물을 만들어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서 나왔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입술을 세 번 자른 뒤에야 말을 했다. ㉣왕이 천제 아들의 비(妃)임을 알고 별궁(別宮)에 두었는데,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신작(神雀) 4년 계해년(癸亥年) 4월에 주몽(朱蒙)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중략>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졌다. 금와 왕에게는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하였다. 왕자가 사십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다. 왕자가 질투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 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 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 버리고 돌아왔다. 태자(太子)인 대소(帶素)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코자 했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듣건대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고, 드디어 마목으로 가서 긴 말채찍으로 마구 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허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매우 아위었다. <중략>

주몽은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보(陜父) 등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개사수(蓋斯水)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다.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주교(舟橋)를 보내 주소서."라 하였다.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라."라 하고 이에 오곡(五穀)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말하되 "분명히 신모(神母)께서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라 하고, 이에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았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 작자 미상, '주몽 신화'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11. 윗글의 ㉠ ~ ㉤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선조의 말을 들은 ㉡은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변경한다.
- ② ㉢의 장인은 ㉣에게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과 그의 어머니의 지혜를 일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두 인물 모두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이 햇빛을 통해 잉태된 것은 ㉠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잉태 과정에는 태양 숭배 사상이 반영되었다.
- ⑤ ㉡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을 ㉣의 자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사를 통해 ㉣에게 시련이 닥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12. 주몽 신화의 (1) 구성방식과 (2) 밑줄 친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조건>

- (1)은 '구성방식'이란 단어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 (2)는 3어절로 서술할 것.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13. 다음 <보기>의 작품이 해당하는 갈래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래 이야기가 어찌 되는가 하면, 그 전에 사부자(四父子)가 있었는데 농사를 많이 지으면 오히려 농사 안 지은 때보다도 더 간고(艱苦)하게 산단 말이지. 짚신을 삼고 살면 찢거리는 되는데, 그중 끝에 아들이 한 날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난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왜 우린 복이 없느냐고 원정(原情)\*을 가겠소.”했거든.

뒷부분의 줄거리

막내아들은 길에서 만난 젊은 여자, 이무기의 원정까지 말해주기로 약속하고 옥황상제를 만난다. 옥황상제는 막내아들의 가족은 몸이 편하면 박명(薄命)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복이 생기는 길ियो, 매번 과부가 되는 젊은 여자는 여의주를 얻은 남편을 얻어야 백년해로하고, 욕심이 많아 두 개의 여의주를 가져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는 하나를 버려야 용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막내아들은 이무기의 여의주를 하나를 가져다 젊은 여자와 혼인하고 이무기는 용이 된다.

\*원정 : 사정을 하소연함.

- ① 전승 과정에서 많은 수정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 ② 구비 문학의 전승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 ③ 사대부 계층에 의해 구비 전승되어 온 집단 창작물이다.
- ④ 이야기의 구조가 평면적이며,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다.
- ⑤ 평범한 인물이 주체적으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부여 왕 해부루(解夫婁)는 산천(山川)에 제사하여 곤연(淵)의 돌 아래에서 아들 금와(金蛙)를 얻었다. 부여 왕은 정승 아란불(阿蘭弗)의 꿈에 나타난 천제(天帝)의 말에 따라 도읍을 옮겨 나라 이름을 '동부여(東扶餘)'라 하였는데, 예전 도읍에는 신작(神雀) 3년에 천제의 아들 해모수(解慕漱)가 내려왔다.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정사를 돌보았는데, 하백(河伯)의 세 딸인 유화(柳花), 흰화(萱花), 위화(葦花)를 보고 왕비로 삼으려 했다. 해모수가 궁전을 지어 놓고 세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문을 닫으니, 딸인 유화는 미처 달아나지 못하여 해모수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어사(漁師) 강력부추(強力扶鄒)가 금와왕에게 고하기를 “요즈음 어량(魚梁) 안의 고기를 훔쳐 가는 자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 하였다.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 그물을 만들어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서 나왔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입술을 세 번 자른 뒤에야 말을 했다. 왕이 천제 아들의 비(妃)임을 알고 별궁(別宮)에 두었는데,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신작(神雀) 4년 계해년(癸亥年) 4월에 주몽(朱蒙)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닳되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라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馬木)에 가져다 두었으나 말들이 밟지 않았고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이에 왕은 알을 그 어미에게 보내 기르도록 했다.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되어 말을 하였다. 어머니에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라 하니,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의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했다.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졌다. 금와 왕에게는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하였다. 왕자가 사십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다. 왕자가 질투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 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 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 버리고 돌아왔다. 태자(太子)인 대소(帶素)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코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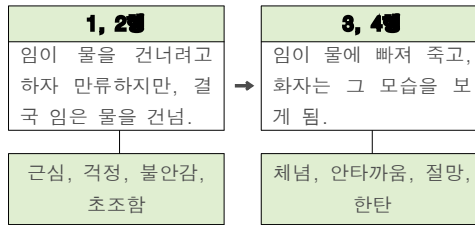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 공무도하가 - 백수 광부의 아내

## 작품 기법

<b>갈래</b>	고대 가요, 서정 가요
<b>성격</b>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b>제지</b>	물
<b>주제</b>	임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과 한(恨)
<b>특징</b>	① 시적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함. ② '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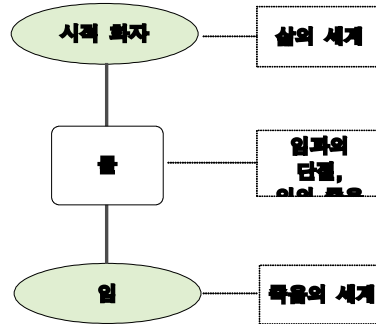
## 핵심 2 시적 화자의 경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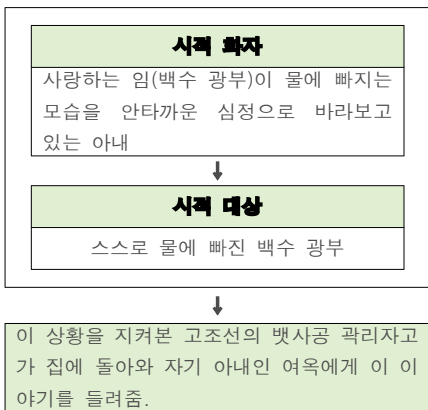
## 작품의 구성

<b>1행</b>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만류함.
<b>2행</b>	임이 물을 건넌.
<b>3행</b>	임이 물에 빠져 죽음.
<b>4행</b>	임의 죽음을 한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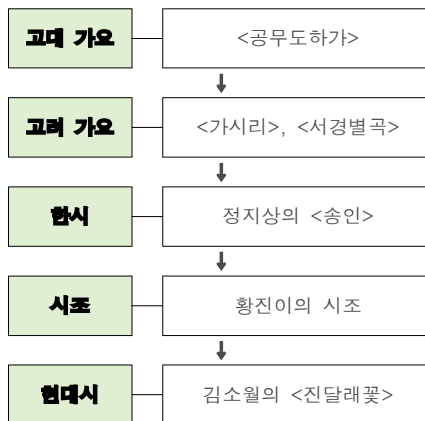
## 핵심 3 '물'의 이미지



## 핵심 1 시적 화자의 시적 대상



## 핵심 4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의 계보



4-(1) 공무도하가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公無渡河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墮河而死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 가신 임을 어찌할꼬.  
- 백수 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나)  
翩翩黃鳥 펄펄 나는 꾀꼬리  
雌雄相依 암수 서로 정답구나.  
念我之獨 외로워라 이내 몸은  
誰其與歸 뉘와 함께 돌아갈꼬  
-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양재고등학교 (서울)**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화자와 자연물을 대비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 ② 원형적 상징을 가진 시어를 사용하여 보편성을 추구한다.
- ③ 제의적이고 주술적인 노래로 권력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 ④ 이별 상황을 소재로 하여 개인의 서정을 담은 시이다.
- ⑤ 고조선의 노래로 관련 설화와 함께 기록되어 전한다.

**광영고등학교 (서울)**

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겹겹이 구름이 쌓인 산 속에 어찌 임이 찾아오겠느냐마는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와 부는 바람 소리에도 행여 임인가  
생각하노라.  
- 서경덕의 시조
- ② 천만리 머너먼 길에 고은 입을 두고 돌아오다가  
내 슬픈 마음을 둘 데가 없어 냇가에 앉았더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 가는구나.  
- 왕방연의 시조
- ③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걸로 눈물 흘리며 속이 타들어 가는 줄 모르는가?  
저 촛불도 나와 같이 속이 타는 줄 모르는구나.  
- 이개의 시조

- ④ 배꽃이 비 내리듯 흩날릴 때 울면서 소매를 부여잡고 이별한 임  
세월이 흘러 가을 바람에 낙엽이 지는 이때에 임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멀리 떨어져 있기에 외로운 꿈속에서만 나를 찾아 오셨다  
가 가시는구나.  
- 계랑의 시조
- ⑤ 청산 속에 흐르는 푸른 시냇물아, 빨리 흘러간다고 자랑  
마라.  
한 번 넓은 바다에 다다르면 다시 청산으로 돌아오기 어려  
우니  
밝은 달이 산에 가득 차 있는, 이 좋은 밤에 나와 같이 쉬  
어감이 어떠냐?  
- 황진의 시조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3.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설의법과 선경후정의 전개방식이 나타난다.
- ② (가)는 작가가 피지배계층이고, (나)는 작가가 지배계층이다.
- ③ (가)는 임과의 재회가 불가능하지만 (나)는 재회의 가능성이 있다.
- ④ (가)는 대조되는 대상물이 없지만 (나)는 대조되는 대상물이 있다.
- ⑤ (가)는 음성상징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는 음성상징어가 나타나 있다.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4. (가)의 ㉠ ~ ㉢의 물의 상징적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조건>

1. ㉠ ~ ㉢의 기호를 언급하여 설명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公無渡河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墮河而死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何 가신 입을 어찌할꼬.  
-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나)  
翩翩黃鳥 펄펄 나는 ㉡피꼬리  
雌雄相依 암수 서로 정답구나.  
念我之獨 외로워라 이내 몸은  
誰其與歸 뉘와 함께 돌아갈꼬  
-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인류의 보편적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 ② (나)와 달리 (가)에는 화자와 이별하게 되는 대상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집단적인 바람을 드러내는 노래로, 고구려의 국중 대회에서 자주 불렸다.
- ④ ㉠는 삶과 죽음의 경계임과 동시에 대상이 그것을 건너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 ⑤ ㉡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의 감정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6. (가)의 설명 중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이다.  
ㄴ. 시적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다.  
ㄷ. 정서가 체념과 한탄에서 걱정과 초조로 변화한다.  
ㄹ. 4언 4구의 한역시가로 이루어진 고대가요 작품이다.  
ㅁ. 반복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7. (가)의 시적 상황과 유사하지 않은 작품은?

- ① 가시리 가시리 잇고 나난 / 버리고 가시리 잇고 나난 / 위 증줄가 대평성대 // 날리는 어찌 살라 하고 / 버리고 가시리 잇고 나난
- ② 비 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 그대를 남포에서 보 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 ③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던가 / 이시라 하더면 가라 마는 제 구태여 /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④ 창 내고자 창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 (중략) 크 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 ⑤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 우리다 // 영변에 약산 / 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 뿌리우리다 //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公無渡河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墮河而死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  가신 임을 어찌할꼬.  
 -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

(나)  
 늦겨곰 브라매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불간 ㉣라리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례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耆郎)이 즈시울시 수프리야   기랑(耆郎)의 모습이울시  
   수풀이여.  
 일오(逸烏) 나릿 지락괴            일오(逸烏)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여 디니더시온            낭(郎)이 지니시던  
 막스미 ㉦술 좃느라져            마음의 갓을 좃고 있노라.  
 아야 자싯가지 노포                아야,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누니 모듈 두폴 곳가리여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 충담사 지음, 김완진 해독, 「찬기파랑가」 -

(다)  
 狂噴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 최치원, 「제가야독서당」 -

경희여자고등학교 (서울)

8.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국 문학은 우리 조상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고대 국가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제천 의식에서 불리던 긴 노래 외에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감정을 담은 노래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삼국이 국가의 기틀을 확립한 이후 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한자가 보급되면서 한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한문학은 귀족층에 의해 창작·향유되었으며 그 수준이 높았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문학은 다수의 작품이 문헌에 기록되어 전하며 특히 신라 문학을 대표하는 갈래인 향가는 최초

의 정형화된 서정시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향찰로 기록해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드러내었다.

- ① (가)는 제천 의식에서 집단적 체험을 주술적 어조로 담은 노래이다.
- ② (나)는 의미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10구체 향가로, 정형 시가이다.
- ③ (다)는 오랫동안 구전되다가 한자가 보급되면서 문자로 정착된 한시이다.
- ④ (나)와 (다)에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엿볼 수 있다.
- ⑤ (나)와 (다)의 형식상 유사성은 둘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전통이 계승되었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경희여자고등학교 (서울)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임과 헤어지지 않으려는 화자의 간절한 사랑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② ㉡는 임을 죽게 만드는 원인으로 임과 화자의 이별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③ ㉢는 생사의 갈림길이자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임의 죽음을 확인하는 대상이다.
- ④ ㉣는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기랑'의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 대상이다.
- ⑤ ㉤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으로부터 부정적 공간을 분리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경희여자고등학교 (서울)

10.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파랑'의 인품을 흠모하고 이를 따르려는 화자의 의지가 돋보인다.
- ②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기파랑'이 지녔던 가치가 퇴색해 가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난다.
- ④ '기파랑'의 여러 모습을 다양한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⑤ '기파랑'은 '랑(浪)'이라는 말을 통해 고매한 인품을 지닌 화랑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관양고등학교 (경기)**

1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머리를 내어라  
 若不現也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燔灼而喫也      구워 먹으리  
 - 구간 등, 「구지가(龜旨歌)」

(나)  
 公無渡河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墮河而死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      가신 입을 어찌할꼬.  
 -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다)  
 翩翩黃鳥      펄펄 나는 저 꾀꼬리  
 雌雄相依      암수 서로 정답구나.  
 念我之獨      외로워라 이내 몸은  
 誰其與歸      뉘와 함께 돌아갈꼬.  
 -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 ① (가), (나)는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대상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다)는 남이 돌아오기를 소원한다는 점에서 수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거북'은 가락국 백성들이 섬기는 신령스런 존재로 (다)의 '꾀꼬리'는 임에 대한 사랑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다.
- ④ (나)는 '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다)는 '선경후정'의 구성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 ⑤ (나), (다)는 원시 및 고대 초기의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를 담고 있는 시가로 제의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公無渡河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墮河而死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      가신 입을 어찌할꼬.  
 -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광성고등학교 (서울)**

12. 다음 <보기>의 배경 설정화와 관련하여 위 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조선의 뱃사공 광리자고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배를 저어 가는데, 머리가 하얗게 쏜 미친 사람 (백수 광부)이 술병을 들고 강물을 가로질러 건너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뒤따르며 말렸지만, 그는 끝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는 강가에서 공후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통곡하였는데, 이 노래가 <공무도하가>이다.

노래가 끝나자 아내 또한 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이 광경을 목격한 광리자고는 집에 돌아와 자기 아내인 여옥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들려주었다. 여옥은 눈물을 흘리면서 공후를 안고 노래를 불렀는데, 듣는 사람마다 눈을 흘렸다. 여옥이 이 노래를 옆집에 사는 여용에게 가르쳐 주니, 이 노래의 악곡명을 <공후인(箜篌引)>이라 한다.

- ① 임에 대한 원망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 ② 임의 죽음을 목격하고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이별의 슬픔을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 ④ 임과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달라 이별을 맞이하고 있다.
- ⑤ 임에 대한 사랑과 단절로 인한 비애로 절망하고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13.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입을 걱정하는 이유가 된다.
- ② ㉡는 깊은 사랑과 이별을 의미한다.
- ③ ㉢는 화자와 입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 ④ ㉣는 임과의 단절, 죽음을 의미한다.
- ⑤ ㉠~㉣는 임과 화자를 갈라놓는 상징적 소재이다.

## 찬기파랑가 \_ 총답사

### 작품 기법

<b>갈래</b>	10구체 향가
<b>성격</b>	추모적, 서정적, 예찬적
<b>제재</b>	기파랑의 모습과 인격
<b>주제</b>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예찬
<b>특징</b>	① 뛰어난 상징과 비유를 통해 기파랑의 모습과 인격을 형상화함. ② 대상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시함. ③ <제망매가>와 더불어 가장 서정성이 높은 향가 작품으로 평가됨.

### 작품의 구성

<b>1~5행</b>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부재를 안타까워함.
<b>6~8행</b>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본받고 싶음.
<b>9~10행</b>	기파랑의 인품과 높은 절개를 예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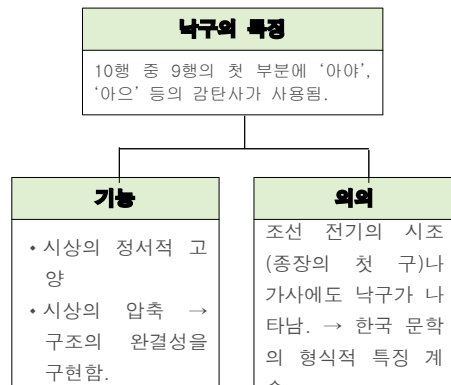
### 핵심 1 향가의 갈래적 특징

<b>기원</b>	신라의 대표적 시가이며 향찰로 기록함.
<b>전기</b>	8~10세기 무렵 활발하게 창작·소통됨.
<b>형식</b>	4구체, 8구체, 10구체
<b>특징</b>	• 민요에 바탕을 둔 작품에서 개인이 창작한 서정시까지 성격이 다양함. • 승려, 화랑 등 지식인 계층이 대체로 향유함.

### 핵심 2 소재의 상징적 의미

<b>갯나무 가지</b>	↔	<b>눈</b>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존재 → 기파랑의 높은 절개	대립	시련, 역경, 부정의 세력 등

### 핵심 3 '낙구'의 기능과 의의



4-(2) 찬기파랑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咽鳴爾處米                    늦겨곰 부라매  
 露曉邪隱月羅理            이슬 불간 ㄸ라리  
 白雲音逐干浮去隱安支下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레  
 沙是八陵隱汀理也中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耆郎矣兒史是史藪邪        기랑(耆郎)이 즈시올시 수프리야  
 逸鳥川理叱磧惡希           일오(逸鳥) 나릿 지벽괴  
 郎也持以支如賜烏隱        낭(郎)이여 디니더시은  
 心未際叱勝逐內良齊        마음미 ㄸ솔 좃노라져  
 阿耶栢史叱枝次高支好      아야 자싯 가지 노포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누니 모돌 두폴 꽃가리여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鳥)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 지니시던  
 ㉣마음의 갖을 좃고 있노라.  
 아야,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곁이여.  
 - 충답사 지음, 김완진 해독, '찬기파랑가'

**양재고등학교 (서울)**

1. 윗글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쭈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 견우 노옹(牽牛老翁) 지음, 김완진 해독, <헌화가(獻花歌)>

동경(東京)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해였고  
 둘은 누구했고.  
 본디 내해다마는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 처용 지음, 김완진 해독, <처용가(處容歌)>

- ①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한 차자 표기 방식으로 기록되어 전한다.
- ② 향가에는 4구체, 8구체, 10구체 등 다양한 형식이 있다.
- ③ 그리움, 구애, 축사(逐邪) 등 소재와 정서가 다양하다.

- ④ 서정적인 것, 주술성을 띤 것 등 작품의 성격이 다양하다.
- ⑤ 대부분 민요가 구전되다가 기록되어 정착된 것이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의 아아와 <보기>의 어즈버가 시상 전개상 갖는 기능과 문학사적 의의를 서술하십시오.

<보기>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히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煙月)이 솨이런가 흐노라.  
 - 길재

**광영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대상의 인품을 자연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에서 수풀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 ③ ㉢에서 대상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 ④ ㉣에서 대상을 좃고자 하는 화자의 흠모하는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 ⑤ ㉤에서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는 대상의 높은 인품을 찬양하고 있다.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서 시적 대상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찾아 쓰시오. (단, 2행을 초과하지 말 것.)

4-(2) 찬기파랑가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咽鳴爾處米  
 露曉邪隱月羅理  
 白雲音逐干浮去隱安支下  
 沙是八陵隱汀理也中  
 耆郎矣兒史是史敷邪  
 逸鳥川理叱磧惡希  
 郎也持以支如賜烏隱  
 心未際叱脞遂內良齋  
 阿耶栢史叱枝次高支好  
 雪是毛冬乃平尸判也

<찬기파랑가>

(가) 늦겨곰 부라매  
 이슬 불간 드라리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레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기랑(耆郎)이 즈시올시 수프리아.  
 일오(逸鳥) 나릿 지벽기  
 낭(郎)이여 디니더시온  
 막스미 궂흠 좇느라져  
 아야 자짓 가지 노포  
 ㉠노니 모듈 두플 곳가리여

- 김완진

(나) 열치매  
 나토안 딴이  
 흰 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새파른 나리여히  
 기랑의 즈시 이슈라  
 일로 나릿 지벽히  
 낭에 디니다샤온  
 막스미 궂흠 좇누아져  
 아오. 잣가지지 노파  
 서리 문누올 화반이여.

- 양주동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죽은 기파랑을 추모하기 위한 의도로 창작되었다.
- ②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였다.
- ③ 색채대비를 사용하여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우리말의 어순과 문법적인 관계까지 나타내는 향찰이 사용

된 갈래이다.

- ⑤ 자연물에 시적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기파랑을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6.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명	(가)	(나)
㉠ 기파랑의 비유	돌, 물서리, 수플, 자짓가지	돌, 나리, 지벽히, 잣가지
㉡ 3단 구성	5구-3구-2구	3구-5구-2구
㉢ 부정적 의미 시어	눈	서리
㉣ 화자가 있는 장소	명시되어 있음	명시되지 않음
㉤ 시상전개 방식	화자의 독백	달과의 문답과 화자의 독백

- ① ㉠ ㉡ ㉢ ㉣
- ② ㉡ ㉢ ㉣ ㉤
- ③ ㉢ ㉣ ㉤
- ④ ㉣ ㉤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에는 신라 말기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기파랑과 화랑이 융성했던 시대에 대한 향수가 서려 있다. 이에 자연물 자체로 그리기보다는 자연물이 지닌 속성을 통해 화랑의 고결한 인품을 드러내려 하였다. 신라의 역사에서 화랑이라는 단어가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 화랑을 기린 노래가 단순한 찬양가에 머무를 수 없고, 어떤 의미로든 신라 왕조의 역사 및 사회적 변동 양상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 경덕왕은 이를 두고 기의심고(그 뜻이 매우 높음)라는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렸다. 단순한 서정시라면 임금의 처소까지 전파 되어 그의 뇌리에 남아 있을 리가 없다.

- ① 기파랑(화랑)은 당대에 많은 이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받았다.
- ② 혼란한 사회 속에서 기파랑이 부정적인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와 기개가 돋보인다.
- ③ 경덕왕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였다는 것은 이 작품이 당대를 풍미한 유명한 향가 작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자연 대상을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대상물에 투영하여 바라보고 있다.
- ⑤ 어려운 시대 현실 속에서 지금은 사라져 버린 화랑의 고귀한 인품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8. 윗글이 <보기>의 갈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반드시 두 글에서 구절을 각각 찾아 언급하고, 핵심어를 포함하여 2가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봄이 왔다 후퇴 소식을 모로더니  
 냇가에 프른 버들 네 몬져 아는구나  
 어즈버 인간이별을 또 엇지하느다.  
 - 신희, <봄이 왔다~>

<조건>

1. 윗글이 <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어를 포함하여 2가지를 설명할 것.  
 2. 1가지에는 반드시 윗글과 <보기>에 있는 구절을 각각 찾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서술할 것.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9. (나)에서 기파랑의 자태나 성품을 나타내는 소재를 현대어로 4가지를 적고, 이에 해당하는 기파랑의 품성을 <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조건>

1. 소재는 윗글에 나타난 원문의 내용을 현대어로 풀이하여 옮길 것.  
 2. 소재에 해당하는 자태나 품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10. 윗글은 신라 시대 문학의 한 갈래에 속한다. 이 갈래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 ① 은비 : 이 갈래의 명칭을, 신라의 노래라는 뜻의 '사뇌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 ② 예나 : 하지만 그 명칭은 이 갈래에서도 특정 길이의 작품에만 쓰이는 용어인데? 갈래 전체를 포괄하지 못해.
- ③ 채연 : 그것보다, 이 갈래에 속하는 작품이 총 25수밖에 안 된다는 게 놀라워.
- ④ 채원 : <삼국사기>가 없었으면 훨씬 더 적은 수가 전해졌을 거야.
- ⑤ 원영 : 주요 작가 계층이었던 화랑이 쇠퇴한 것이 이 갈래의 몰락에 일조했을 거야.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11. 다음 중 밑줄 친 ㉠의 의미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 ① 白雪(백설)이 즈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온 梅花(매화)는 어니 곳인 피엿논고  
 夕陽(석양)의 홀로 서 이셔 갈 곳 몰라 호노라.
- ② 이 몸이 주겨 가서 무어시 뵈소 하니,  
 蓬萊山(봉래산) 第一峯(제일봉)에 落落長松(낙락장송) 되야 이셔,  
白雪(백설)이 滿乾坤(만건곤)을 제 獨也靑靑(독야청청) 흐리라.
- ③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말가.  
 落落長松(낙락장송)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흐믈며 못다 핀 곳이야 닐러 므슴 흐리오.
- ④ 바람이 눈을 모라 山窓(산창)에 부딪치니,  
 찬 氣運(기운) 시여 드러 줌든 梅花(매화)를 侵擄(침노)한다.  
 아무리 열우려 흐인들 봄 쫓이야 아슬소냐.
- ⑤ 눈 마즈 휘여진 디를 누라서 굽다턴고.  
 구불 節(절)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歲寒高節(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호노라.

4-(2) 찬기파랑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늦겨곰 브라매  
 이슬 불간 ㄷ라리  
 힌 구름 조초 ㅍ간 언저레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기랑(耆郎)이 즈시올시 수프리아  
 일오(逸鳥) 나릿 지벽괴  
 낭(郎)이여 디니더시온  
 막스미 ㄱ술 좇느라져  
 아야 자싯 가지 노포  
 ㉠누니 모듈 두폴 곳가리여  
 - 총담사, '찬기파랑가'

(나) 동경(東京)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해였고  
 둘은 누구했고.  
 본디 내해다마는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 처용, '처용가'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1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자연물은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되는 소재로 화자에게 풍류를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 ② (나)는 감탄형 종결어미와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대비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에서는 추상적 시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드러낸다.
- ⑤ (가)와 (나) 모두 구체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늦겨곰 브라매  
 이슬 불간 ㄷ라리  
 힌 구름 조초 ㅍ간 언저레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기랑(耆郎)이 즈시올시 수프리아  
 일오(逸鳥) 나릿 지벽괴  
 낭(郎)이여 디니더시온  
 막스미 ㄱ술 좇느라져  
 ㉡아야 자싯가지 노포  
 ㉢누니 모듈 두폴 곳가리여  
 - 총담사, 「찬기파랑가」(김완진 해독) -

(나)  
 ㉣간 봄 문 오리매  
 모듈 기스샤 우를 이 시름.  
 막돛곳 불기시온  
 즈시 히 헤나삼 헐니져.  
 누닉 도랄 업시 덕옷  
 맛보기 엇디 일오아리.  
 낭(郎)이여 그릴 막스미 좇 녀을 길  
 ㉤다보짓 굴형히 잘 밤 이샤리.  
 - 덕오, 「모죽지랑가」(김완진 해독) -

(다)  
 生死 길흔  
 이에 이야매 머뭇그리고  
 나는 가는다 말또  
 몰다 니르고 가느닛고  
 어느 ㄱ술 이른 브르매  
 이에 데에 ㉥쁘러덜 ㄴ넙곤  
 흐든 가지라 나고  
 나는 곧 모드론데  
 아야 미타찰(彌陀刹)아 맛보올 나  
 ㉦道(도)닷가 기드리고다.  
 - 월명사, 「제망매가」(김완진 해독) -

**고잔고등학교 (경기)**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낙구를 지닌 10구체 향가의 형식이다.
-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 ③ 과거 - 현재 - 미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4-(2) 찬기파랑가

- ④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 대상의 긍정적인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대화체를 활용하여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고잔고등학교 (경기)**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련이나 역경도 이겨 낼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고 있다.
- ② ㉡ : 죽지랑과 함께 지냈던 시절이 다시는 올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 ③ ㉢ : 다복숙이 우거진 무덤에서 잘 수 없다고 하여 화자의 생(生)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 ④ ㉣ : 죽은 누이를 자연물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⑤ ㉣ : 화자의 슬픈 정서를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고잔고등학교 (경기)**

15. (가)를 읽고 물음에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 (1) 화자가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을 2가지 찾고, 그것에 내포된 의미를 각각 서술하시오.

<조건>

내포된 의미는 화자가 '기파랑'에서 본받고 싶어 하는 속성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 (2) (가)에서 ㉣의 기능을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咽鳴爾處米                      늦겨곰 부라매  
 露曉邪隱月羅理                이슬 불간 ㉠드라리  
 白雲音逐干浮去隱安支下한 ㉡구름 초초 떠간 언저레  
 沙是八陵隱汀理也中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耆郎矣兒史是史藪邪            기랑(耆郎)이 즈시올시 수프리아  
 逸鳥川理叱磧惡希               ㉢일오(逸鳥) 나릿 지벽기  
 郎也持以支如賜烏隱            낭(郎)이여 디니더시은  
 心未際叱盼逐內良齊            마음미 7술 좃노라져  
 阿耶栢史叱枝次高支好        아야 ㉣자싯가지 노포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누니 모듈 두폴 꽃가리여  
 - 총답사, 「찬기파랑가」

**광성고등학교 (서울)**

16. 위 시의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들(달)'은 높이 우러르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의미한다.
- ② ㉡의 '구름(구름)'은 하얗고 순결한 대상으로 기파랑의 기개를 의미한다.
- ③ ㉢의 '일오 나릿 지벽기(일오 내 자갈벌)'은 화자가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 ④ ㉣의 '자싯가지(잣나무 가지)'는 기파랑의 높은 절개를 의미한다.
- ⑤ ㉤의 '누니(눈)'은 차가운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시련과 역경을 의미한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17. 위 시와 <보기>의 작품을 보고, <조건>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보기>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호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솟이런가 호노라.  
 - 길재

<조건>

- 1) 향가인 위 시와 시조인 <보기>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이 있음의 근거가 되는 시어를 위 시에서 한 개, <보기>에서 한 개 찾아 쓸 것.
- 2) 조건 1)에서 쓴 시어들이 시에서 하는 공통된 기능을 띄어 쓰기 미포함 10자 이내로 서술할 것.

## 청산별곡\_ 작자 미상

### 작품 기법

<b>감제</b>	고려 가요, 서정시
<b>상제</b>	현실 도피적, 애상적, 낙천적
<b>제제</b>	청산, 바다
<b>주제</b>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b>특징</b>	① 'A-A-B-A'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남. ② 후렴구에 '르'와 '오' 음을 반복하여 음악성을 드러냄. ③ 감정 이입, 반복, 상징, 의인, 비교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구사함.

### 작품의 구성

<b>1연</b>	청산에 대한 동경	청산에서의 삶을 노래함.
<b>2연</b>	삶의 비애와 고독	
<b>3연</b>	속세에 대한 미련	
<b>4연</b>	고독과 외로움	
<b>5연</b>	운명적 고독과 번뇌	바다에서의 삶을 노래함.
<b>6연</b>	바다에 대한 동경	
<b>7연</b>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	
<b>8연</b>	고뇌의 일시적 해소	

### 핵심 1 고려 가요의 특징

<b>내용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도나 충절과 같은 유교적 이념,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 남녀 간의 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li> <li>•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고 비판받기도 함. → 〈만전춘별사〉, 〈쌍화점〉, 〈이상곡〉 등</li> </ul>
<b>형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으나, 대부분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로 이루어짐.</li> <li>• 대체로 3:3:2조 3음보 율격이 나타남.</li> <li>• 후렴구가 있는 경우가 많음.</li> </ul>

### 핵심 2 후렴구의 기능

#### 알리알리 알랑(라)성 알라리 알라

- 악기의 의성어로, 흥을 돋고 노래의 리듬에 맞추기 위한 것
- '르' 음과 '오' 음의 연속으로 매끄러운 음악적 효과를 가지며,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을 줌.

### 핵심 3 시어의 상징적 의미

<b>청산, 바다</b>	시적 화자의 이상향으로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
<b>새</b>	시적 화자의 분신이며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
<b>밤</b>	시적 화자가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는 시간
<b>물</b>	시적 화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인간의 가혹한 운명
<b>강수[술]</b>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잊게 하는 매개체

### 핵심 4 작가에 따른 해석

#### '유랑민'일 경우

몽골의 침략, 무신 집권기의 수탈 등 어려운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랑민으로 전락한 민중의 애환을 그린 노래

#### '지식인'일 경우

혼탁한 사회에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 수 없어,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지식인의 노래

#### '실연한 여인'일 경우

실연의 슬픔을 잊기 위해 자연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여인의 노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령공 더령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믹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누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양재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5연과 8연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양재고등학교 (서울)**

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속세와 대조되는 마음의 안식처, 이상향을 뜻한다.

- ② ㉡ : 후렴구로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 ③ ㉢ : 시적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이자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④ ㉣ : '날아가던 새' 또는 '갈던 사래'로 해석한다.
- ⑤ ㉤ : 낮 동안의 이런저런 상념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광영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연의 '청산'과 4연의 '바르' : 가고 싶은 이상향
- ② 2연의 '새'와 3연의 '새' : 감정 이입의 대상
- ③ 1연의 '멀위'와 6연의 '누므자기' : 보잘 것 없는 삶
- ④ 3연의 '물 아래'와 5연의 '괴리도' : 속세에 대한 미련
- ⑤ 7연의 '드로라'와 8연의 '비조라' : 적극적 문제 해결 의지

**광영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의 화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5. 윗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산'과 '바르'은 화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서 가는 도피처로서의 성격을 띤다.
- ② '널라와 시름 한 나도'는 화자의 시름이 더 많다는 뜻으로, 화자와 새의 대조법을 통해 시름의 깊이를 표현한다.
- ③ 작가를 유랑민으로 보았을 때, '임무든 장글란'은 '이끼 문은 쟁기일랑'으로 해석하며 이는 삶의 터전을 오랫동안 떠나있음을 암시한다.
- ④ '마자셔 우니노라'를 통해 인간에게 닥친 운명적 비애에 화자는 체념적인 태도로 일관함을 알 수 있다.
- ⑤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을 허거를 드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기적을 통해 해결하려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영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이링공 더링공 허야 ㉣나스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어딤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므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 별곡>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에 대해 잘못된 분석한 학생은?

- ① 서준 : ㉠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은 이상적인 공간으로도, 도피처로도 인식될 수도 있어.
- ② 준열 : 윗글의 화자를 유랑민이 된 농민으로 본다면 ㉢은 화자가 속세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의미할 거야.
- ③ 경수 : ㉣은 ㉤과 대비되는 시간으로, 화자가 현재와 같은 고독한 상황에 처하기 전 행복했던 시간을 의미해.
- ④ 우빈 : 윗글의 화자를 유랑민으로 본다면, 화자는 ㉦과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만족스럽지는 않겠군.
- ⑤ 동휘 : ㉧을 '진짜 사슴'으로 본다면 화자는 ㉨이 상징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겠지.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7. 다음은 민호가 <청산별곡>에 대하여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한 후 작성한 발표 대본의 일부분이다. 민호의 대본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청산별곡>은 고려 가요에 속하는 작품으로, ㉠고려 시대에 창작되었으나 조선 시대에 와서 국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고려 가요의 일반적인 형식적 특징을 <청산별곡>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살어리 / 살어리랏다 / 청산(靑山)에 / 살어리랏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4음보 율격, ㉢'알리알리 알랑성'과 같은 후렴구, ㉣연이 나뉘어 있음을 의미하는 분연체 등이 그것입니다. 고려 가요는 내용도 상당히 다양한데, 그 중 <청산별곡>은 ㉤가혹한 현실에서 오는 비애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광주고등학교 (광주)**

8. <보기 1>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시어를 <보기 2>와 윗글에서 찾아 적고, 각 시어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단,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보기 1>  
 문학 작품에 동일한 시어가 사용되더라도 시어가 사용된 상황이나 화자의 정서 변화 등에 따라 그 역할과 의미는 매우 다르다. 또한 시어는 일상어와 달리 함축성이 강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나 정서의 연상이 가능하도록 기능한다.

<보기 2>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입을 어찌할꼬.  
 - 백수광부의 아내, 「公無渡河歌(공무도하가)」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다.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 양산에 은거하여 동굴에서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비로소 황제(黃帝) 때에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산야(山野)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중략>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려경(鴻臚卿)이 되었다.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禰)가 교만하고 참람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호제(虎帝) 때에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제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후(富民侯)로 임명했다. 그 무리인 염철승(鹽鐵丞) 근(僮)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家兄)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子母)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분을 버리고 끝을 좇도록 하고, 농사짓는 것을 방해했다.

- 임춘, <공방전(孔方傳)>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일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자기 성찰의 과정을 바탕으로 글이 전개된다.
- ③ 자문자답의 방식을 통해 결론을 얻어 서술자의 생각을 펼치고 있다.
- ④ 외양 묘사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성격을 유추하도록 하고 있다.
- ⑤ 일상적인 경험을 점층적으로 확대하여 대상으로부터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하고 있다.

**광주고등학교 (광주)**

10. 윗글의 ㉢을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가치관에 대해 서술하시오.

**광성고등학교 (서울)**

11. ㉠~㉤ 중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르면?

- ① ㉠ : 끈에다 꿰어서 쓰는 돈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 ② ㉡ : 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③ ㉢ : 돈의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 공방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보여 준다.
- ④ ㉣ : 이자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공방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 ⑤ ㉤ : 여기서 ‘근본’은 곡식을 짓는 농업을, ‘끝’은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공업을 의미한다.

**송림고등학교 (경기)**

12.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방은 호가호위(狐假虎威)를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였다.
- ② 사물을 의인화하여 작가의 비판적인 태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전기적(傳奇的) 구성을 통해 한 인간의 생애를 다루듯 공방의 생애를 서술하고 있다.
- ④ 이 문학 장르는 설화나 패관 문학과는 달리 개인의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교량적 구실을 한다.
- ⑤ 공방은 사람 사귀는 데 이해득실만을 따져보고, 참다운 인간 관계를 맺지 못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

**송림고등학교 (경기)**

13. (1) 공방이란 이름이 유래된 부분을 윗글에서 4어절로 찾아 쓰고, (2)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 드러나는 공방의 성격을 <조건>을 지켜 서술하시오.

<조건>

- 주어와 서술어를 갖출 것.
- 한자 성어를 사용할 것. 한자는 쓰지 않아도 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멸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넝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랑공 더령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또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므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누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허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

(나)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뵤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긴히든 아즐가 ㉥긴히든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즘은 히를 아즐가 즘은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잇든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비 내여 아즐가 비 내여 노훈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널 비예 아즐가 널 비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비 타들면 아즐가 비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 -

**고잔고등학교 (경기)**

14.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3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 ② A-A-B-A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 ③ 여러 연으로 이루어진 연장체 형식이다.
- ④ 반복적인 표현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후렴구에 울림소리가 사용되어 음악성이 나타나고 있다.

**고잔고등학교 (경기)**

15. ㉠과 유사한 표현 방식이 드러나는 것은?

- ① 대쵸 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뿔드르며  
 벼 뵤 그르헤 게는 어이 누리논고  
 술 닉자 체 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황희
- ②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單手)를 네 듯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쓴 뭍은 물에 산영(山影)조츰 잠겼세라.  
 아희야 무릉(武陵)이 어디오 나는 연가 허노라.  
 - 조식

③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 할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듯든가.  
 진실(眞實)로 풀릴 거시면 나도 불러 보리라.

- 신희

④ 방(房) 안에 헛는 촛(燭)불 누구와 이별(離別)헛엇관디  
 것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로논고  
 더 촛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줄 모로도다

- 이개

⑤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권가 하노라.

- 서경덕

**고잔고등학교 (경기)**

1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청산'과 '바를'을 이상향으로 설정하여 삶의 고단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보는 것은 속세와 단절하여 은둔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③ '낮'과 '밤'의 정서를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절망과 고독의 시간인 '밤'에 느끼는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돌'은 인간의 가혹한 운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 ⑤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을 허거를 드로라'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고잔고등학교 (경기)**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자신의 삶의 공간인 서경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 생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 ③ ㉢ :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다짐하고 있다.
- ④ ㉣ : 대동강의 속성을 통해 화자와 임의 거리감이 부각되고 있다.
- ⑤ ㉤ : 질투의 감정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다.

**고잔고등학교 (경기)**

18. (나)와 <보기>의 화자가 이별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서술하시오.

<보기>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부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셜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논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관양고등학교 (경기)**

19. (가)의 ㉠, ㉡을 현대어로 풀이하시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 시조 세 편 \_ 우탁 / 성삼문 / 홍방

### 시조 ㉑ <운산(雲山)에 눈 녹인 백발>

#### 작품 기원

<b>감체</b>	평시조
<b>성격</b>	낙천적, 달관적, 영탄적
<b>제제</b>	춘산에 눈 녹인 바람, 서리(백발)
<b>주제</b>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
<b>특징</b>	①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늙음을 한탄하면서도 인생을 달관하는 여유가 나타남.

#### 작품의 구성

<b>초장</b>	봄바람이 산의 눈을 녹이고 사라짐.
<b>중장</b>	봄바람을 빌려 머리 위에 붙게 하고 싶음.
<b>종장</b>	백발을 없애고 다시 젊어지고 싶음.

#### 시어의 대비

<b>운산</b>	↔	<b>눈, 서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 이미지</li> <li>• 눈이 녹고 새순이 돌아난 산</li> <li>• '젊음'을 상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흰색 이미지</li> <li>• 귀 밑의 흰머리</li> <li>• '늙음'을 상징함.</li> </ul>

### 시조 ㉒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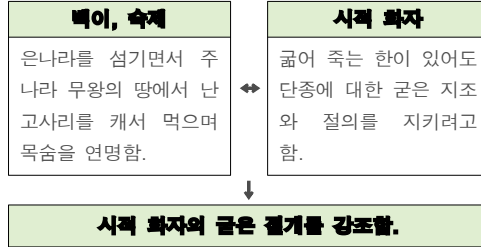
#### 작품 기원

<b>감체</b>	평시조
<b>성격</b>	절의적, 비판적, 풍자적
<b>제제</b>	백이와 숙제의 고사
<b>주제</b>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결의,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
<b>특징</b>	① 중의적,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냄. ②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표현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굳은 절개와 결의를 강조함.

#### 작품의 구성

<b>초장</b>	수양산(수양 대군)을 보며 백이·숙제를 한탄함.
<b>중장</b>	백이·숙제가 고사리로 연명한 일에 대해 비판함.
<b>종장</b>	백이·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를 지키겠다고 다짐함.

### 시조 ㉓ - 화자의 상황과 태도



### 시조 ㉔ <뿔버들 갈며 짓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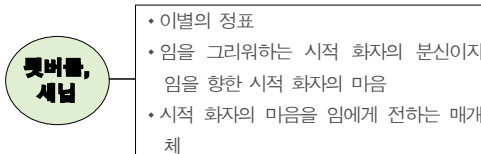
#### 작품 기원

<b>감체</b>	평시조
<b>성격</b>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b>제제</b>	뿔버들, 이별
<b>주제</b>	이별의 정한
<b>특징</b>	① 자연물을 매개로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마음을 표현함. ②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섬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작품의 구성

<b>초장</b>	뿔버들을 꺾어 임에게 보냄.
<b>중장</b>	주무시는 창가에 뿔버들을 심어 두고 보아 달라고 당부함.
<b>종장</b>	임이 '나'를 잊지 말기를 간절하게 호소함.

#### 시어의 상징적 의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춘산(春山)에 ㉡눈 노긴 ㉢브람 건 듯 불고 간 디 없다  
 잠간 ㉣비러다가 불리고자 마리 우희  
 ㉤귀 밋딛 히무근 서리를 노겨 불가 흐노라  
 - 우탁

(나)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흐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흐는 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짜헤 낫드니  
 - 성삼문

(다) ㉠뫓버들 갈희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디  
 자시는 창밖기 심거 두고 보쇼서  
 밤비에 새넙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서  
 - 홍랑

(라) 한때 세상은 / 날 위해 도는 줄 알았지 // 날 위해 돌  
 돌 감아오르는 줄 알았지 // 들길에 / 쪼그려 앉은 분홍  
 치마 계집애  
 -홍성란 <애기매꽃>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1. (가)에서 드러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대초 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뺏드르며,  
 벼 빈 그르헤 계는 어이 누리논고.  
 술 닉자 체 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 ② 秋江(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無心(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③ 가마귀 검다 흐고 白鷺(백로) |야 웃지 마라.  
 것치 거문들 속조차 거물소냐.  
 아마도 것 희고 속 거물손 너 썸인가 흐노라.
- ④ 무음아 너는 어이 미양에 저멋는다..  
 내 늘글 적이면 넌들 아니 늘글소냐.  
 아마도 너 좃녀 돈니다가 늬 우일가 흐노라.
- ⑤ 興亡(흥망)이 有數(유수)하니 滿月臺(만월대)도 秋草(추초) |  
 로다.  
 五百年(오백 년) 王業(왕업)이 牧笛(목적)에 부쳐시니,  
 夕陽(석양)에 지나는 畝(괵)이 눈물계워 흐노라.

**동탄고등학교 (경기)**

2. (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의 종장 첫 음보는 둘째 음보보다 길다.
- ② (가)는 추상적인 관념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③ (나)는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말의 차례를 뒤바꿈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고사(古事)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동탄고등학교 (경기)**

3. ㉠와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를 매개로 화자가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를 통해 화자는 성찰적 자세로 삶을 돌아보고 있다.
- ③ ㉡를 통해 화자는 잃은 것을 되찾고 싶어하고 있다.
- ④ ㉡를 비판하여 화자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와 ㉡를 통해 인생에 대한 여유와 달관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4. (가) ~ (다)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은 ㉡을 녹인 후 남은 잔여물을 의미한다.
- ② (나)는 ㉢에 대한 기존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 ③ (나)는 ㉣에게, (다)는 ㉤에게 말을 거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가)의 ㉦과 (나)의 ㉧은 모두 화자에게 시적인 흥취를 불러 일으키는 자연 경관에 해당한다.
- ⑤ (가)의 ㉨과 (다)의 ㉩은 모두 현실에서 불가능한 행위를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5. (가) ~ (다)와 (라) 사이의 형식적 차이점을 두 가지만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춘산(春山)에 눈 노긴 바람 건듯 불고 간 디 없다  
 잠간 비러다가 불리고자 마리 우희  
 귀 밋터 히무근 서리를 노겨 불가 흐노라  
 - 우탁 -

(나)  
 흰 손에 막디 잡고 또 흰 손에 가식 쥐고  
 늙는 길 가식으로 막고 오는 백발(白髮) 막디로 치러터니  
 백발(白髮)이 제 묻져 알고 즈럼길노 오더라  
 - 우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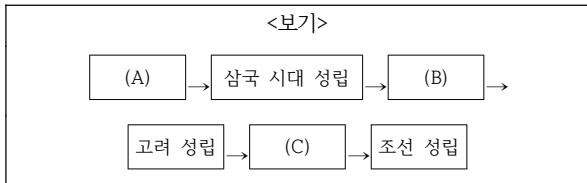
(다)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 흐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흐는 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님 짜해 낫드니  
 - 성삼문 -

(라)  
 이 몸이 주겨 가서 무어시 될꼬 하니  
 봉래산(蓬萊山) 제일봉(第一峯)에 낙락장송(落落長松) 되야 이저  
 백설(白雪)이 만건곤(滿乾坤)을 제 독야청청(獨也靑靑) 흐리라.  
 - 성삼문 -

(마)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누라서 굽다튼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高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 원천석 -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6. <보기>의 연표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흐름을 설명할 때, (A) ~ (C)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 한국 문학에서는 천지창조와 관련된 신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② (B) : 한자가 전래되어 서민 계층도 한문 문학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B) : 신라의 육두품(六頭品)은 불교를 수용하고 보편성을 중시하는 문학을 추구하였다.
- ④ (C) : 한시가 쇠퇴하고 지배층은 주로 경기체가를 향유하였다.

⑤ (C) :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기점으로 소설 갈래가 확립되었다.

**고잔고등학교 (경기)**

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늙음을 한탄하면서도 인생을 달관하는 여유와 관조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 ② (나) :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을 통해 늙음을 한탄하고 있다.
- ③ (다) : 고사를 활용하여 화자와 '이제'를 대비하고 있다.
- ④ (라) : 자연물의 이미지를 활용해 사대부의 유교적 덕목을 보여주고 있다.
- ⑤ (마) : 대나무를 인격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하고 예찬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잔고등학교 (경기)**

8. (가)~(마)의 표현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나)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늙음을 막으려는 인간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다)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지조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라)는 절개를 지키다 죽은 후의 화자의 모습을 가정적으로 표현하여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마)는 속세와 자연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자연에 은거하는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고전고등학교 (경기)**

9. (다)와 <보기>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거사(居士)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그러나 조석으로 들여다 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어떤 손(客)이 보고 묻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칠 수가 없고 또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거사는 말하기를,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리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이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결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은 상우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시기가 역시 늦지 않네. 아,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하였더니, 손은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경설」 -

- ① 대상을 희화화하여 풍자와 해학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대 상황에 대한 현실주의적 처세관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
- ④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의 속성에서 본받고자 하는 덕목을 찾아 이를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내면화하고 있다.

**안양고등학교 (경기)**

10.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성삼문 : 수양대군이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자 단종 복위에 힘쓰다 죽음을 맞이한 충신.
- 백이·숙제(伯夷叔齊) :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자 신하가 천자를 토벌한다고 반대하며 이를 비판하였고, 고사리를 먹으며 수양산에서 연명하다가 굶어 죽음. 절의(節義)를 대표하는 인물.

- ① 초장의 '수양산'은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한다.
- ② 초장에서는 백이, 숙제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는 다른 화자의 평가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중장에서는 중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굳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중장에서는 설의법을 통해 백이와 숙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종장에서는 임금의 녹을 받지 않고 보잘 것 없는 음식을 먹고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춘산(春山)에 ㉠눈 노끈 바람 건듯 불고 간 디 었다  
잠간 비러다가 불리고자 마리 우희  
귀 밋티 허무근 서리를 노겨 불가 허노라.  
- 우탁 -

(나)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限)허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허는 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귀 닐 짜해 닛드니.  
- 성삼문 -

(다) ㉢뫼벼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자시는 창밭기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랑 -

(라) 어이 못 오던가, 무슴 일노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城)을 쓰고 성(城)안에 담 쓰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노코 두지 안에 귀(櫃)를 노코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結縛)허여 너코 쌍비  
목 결쇠에 금(金)거복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관디 네 어이  
그리 못 오던다  
헌 히도 열두 돌이오 헌 돌 설흔 놀의 날 보라 올 훌리 업스  
라  
- 작자미상 -

(마) 이화우(梨花雨) 흠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 계랑 -

**박문여자고등학교 (인천)**

11.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다)는 도치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다)와 (라)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④ (다)와 (라)는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다)와 (마)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박문여자고등학교 (인천)**

12. <보기>를 통해 (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조는 3장 4음보 형식의 정형시이다. 이러한 정형성은 시조가 발생할 때 작가층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나 문학적 지향과 관련 있다. 그러나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정형성이 느슨해지면서 장형화된 사설시조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조의 미학적 성격도 변하게 되었다. 우아한 격조를 지향하던 평시조에서 벗어나 '일탈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해학과 풍자적인 요소 또한 볼 수 있게 되었다.

- ① (라)는 3장 형태와 변형된 4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시조의 특성을 드러내는군.
- ② (라)처럼 중장과 종장이 길어진 것은 평시조의 정형성에서 벗어나 '일탈'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라)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은 사설시조를 창작했던 작가층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나 문학적 지향과 관련이 있겠군.
- ④ (라)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설시조의 특성을 드러내는군.
- 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하는 시기에 기존의 시조가 (라)처럼 정형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통해 작가층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박문여자고등학교 (인천)**

1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적화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다.
- ② ㉡ : 시적화자가 충절의 대명사인 이제(夷齊)를 비판하는 이유이다.
- ③ ㉢ : 시적화자의 분신으로 임이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기능을 한다.
- ④ ㉣ : 시적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연쇄적으로 나열한 장애물을 통해 드러낸다.
- ⑤ ㉤ : 시적화자와 임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안양고등학교 (경기)**

14.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다)는 모두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가)의 '춘산'은 눈이 녹고 새순이 돋아난 산의 이미지로 젊음을 상징한다.
- ③ (가)의 '귀 밧터 히무근 서리'는 화자가 없애고 싶어 하는 것으로 늙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준다.
- ④ (다)의 '심거 두고 보쇼셔'에서 임이 자신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드러난다.
- ⑤ (다)의 '뫼버들'과 '밤비'는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로 화자의 입에 대한 사랑을 부각시켜 준다.

**충훈고등학교 (경기)**

15. (가)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식 쥐고,  
 늙는 길 가식으로 막고 오는 백발(白髮) 막대로 치러터니  
 백발(白髮)이 제 몬져 알고 즈럼길로 오더라.

- ① (가)의 히무근 서리는 <보기>의 白髮(백발)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의 '잡간' 과 <보기>의 '즈럼길'은 세월의 빠름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는 시적 대상의 대비를 통해 <보기>는 의인화를 통해 늙음에 대한 탄식을 노래하였다.
- ④ 화자의 태도 면에서 (가)와 같이 <보기>에서도 늙음에 대해 달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와 <보기>는 평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을 유지하면서 기 발한 발상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였다.

**충훈고등학교 (경기)**

16. 작품의 주제 면에서 (나)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산수간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물론 놈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 윤선도, 「만흥」 -
- ② 눈 마즈 휘여진 대를 뉘라셔 굽다턴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歲寒) 고절(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원천석 -
- ③ 이고 진 더 늘그니 짐 프러 나룰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히라 무러울까.  
 늘거도 설웨라커든 지물조차 지실까  
 - 절철, 「훈민가」 -
- ④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오, 임자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중(中)에 병(病) 업슨 이 몸이 걱정 없이 늙으리라.  
 - 성혼 -
- ⑤ 고인(古人)도 날 몬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몬 보,  
 고인(古人)을 몬 봐도 녀던 길 앞에 있네.  
 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 이항, 「도산십이곡」 -

**4-(1) 주몽신화**

1.① 2.① 3. (1) <주몽신화>에서는 금와왕이 유화가 낳은 알을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버린 것에서 나타나고,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황판서의 첩인 초란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집을 나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탁월한 능력 ㉡위대한 업적 4. ② 5.④ 6.④ 7.(1) 전기성 (2) 처음~낳았다, 목구멍을~날아갔다. 8.⑤ 9.① 10.유화와 웅녀 모두 고난을 극복하였으며, 건국 시조를 낳았고, 신이한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11.⑤ 12.(1) 주몽 신화의 구성방식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이다. (2) 천신과 수신의 결합 13. ③ 14.⑤ 15.④ 16.② 17.⑤ 18.④ 19.④ 20.② 21.③ 22.주몽은 알에서 태어났지만, 단군은 일반적 출생의 과정을 겪었다. 23.④ 24.⑤ 25.④ 26.② 27.(나)의 낙구는 '아아' 감탄사로 시작하여 화자의 감정을 집약하고 시를 마무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이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주어 (다)에서도 종장의 첫음절에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통해 시상을 집약하며 시를 마무리한다. 28.② 29.④ 30.④

**4-(1) 공무도하기**

1.④ 2.⑤ 3.① 4.㉠은 사랑, ㉡은 이별, ㉢은 죽음에 해당한다. 5.③ 6.③ 7.④ 8.② 9.④ 10.③ 11.④ 12.① 13.③ 14.⑤ 15.⑤ 16.③ 17.① 18.② 19.이별의 슬픔과 같은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20.(가)는 임과 죽음으로 인해 이별했으나, (다)는 시적 대상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별했다. 21.① 22.⑤ 23. ④ 24.⑤ 25.③ 26.①

**4-(2) 찬기파랑가**

1.⑤ 2.이 글의 '아아'와 <보기>의 '어즈버'는 모두 감탄사로 앞부분까지 전개되던 시상을 집약하면서 전환하는 공통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유사성은 향가와 시조 사이에 문학적 전통이 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3.③ 4.흐느끼며 바라보매 / 이슬 밝힌 달이 5.⑤ 6.① 7.② 8.<보기>가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의 '아아'와 같은 낙구의 감탄사가 <보기>의 종장 '어즈버'와 같은 3음절로 고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9. '달'은 모두가 우러르는 고귀함을 뜻한다. '넋물'은 맑고 깨끗한 성품을 드러낸다. '조약돌'은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뜻한다. 'жат나무'는 기파랑의 높은 지조를 뜻한다. 10.④ 11.① 12. ⑤ 13.② 14.③ 15.(1) 물서리'는 기파랑의 맑고 깨끗

한 성품을 드러낸다. '자짓가지'는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를 드러낸다. (2) 시상을 고양하고 압축하는 역할을 한다. 16.② 17.1) 아아, 어즈버 2) 시상을 집약한다. 18.⑤ 19.⑤ 20.⑤ 21.② 22.⑤ 23.④ 24.② 25. ② 26.④ 27.(가)아아 (다)어즈버

**4-(2) 청산별곡**

1.시적 화자는 5연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8연은 술을 마셔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2.⑤ 3.① 4.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비애를 뜻한다. 5.② 6.③ 7.② 8.윗글의 '물'은 속세를, <보기2>에서 '물'은 사랑, 이별, 죽음 등을 뜻한다. 9.④ 10.상업보다 농업을 중요하게 여겼다 11.⑤ 12.⑤ 13.(1)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2)공방의 이름을 통해 표리부동한 성격이 드러난다. 14.② 15.④ 16.② 17.⑤ 18.(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뵈'를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보기>의 화자는 임을 붙잡으면 임께서 서운함을 느낄까봐 붙잡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체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19.㉠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 20.④ 21.(가)는 분연체(분절체)이고 후렴구가 있지만, (나)는 단연이고 후렴구가 없다. 22.② 23.④ 24.③ 25.④ 26.① 27.② 28.후렴구,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연과 연을 구분한다.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29.㉡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매개체 30.④ 31.③

**4-(2) 경실**

1.다른 사람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갖자. 2.③ 3.⑤ 4.② 5.① 6.④ 7.⑤ 8.거사의 말을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9.⑤ 10.④ 11.① 12.④ 13.⑤ 14. ② 15.④ 16.②

**4-(2) 시조 세 편**

1.④ 2.② 3.④ 4.② 5.(가)~(다)의 '장'이 (라)에서는 '연'으로 바뀌었다, (가)~(다)는 1'장'이 1행으로 되어 있지만, (라)는 1연이 1행인 것도 있고, 2행인 것도 있다. 6.③ 7.② 8.⑤ 9.③ 10.⑤ 11.① 12.④ 13.① 14. ⑤ 15.② 16.② 17.③ 18.⑤ 19.③ 20.② 21.② 22.④